

올해 계육업계, 어떤 큰 일들이 있었나?

1. 을유년 닭의 해 맞이 기념행사로 2005년을 열다

Hot



2005년 을유년(乙酉年) 새해를 맞아 본회와 관련 단체에서는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 위해 새해 첫날인 1월 1일(토) 서울 남산 해맞이 광장에서 전국의 양계인들과 함께 “닭의 해(乙酉年) 우리닭 사랑해주세요!” 축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 주관 단체장을 비롯, 단미사로 유동준 회장,

방역본부 정영채 본부장, 오리협회 김규중 회장, 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축산연구소 이상진 부장, 비비큐 김태천 사장, 농림부 조병임 사무관 등 내빈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양계인들이 함께 올 한해 양계산업 발전을 기원했다.

또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남산공원을 찾은 일반 시민들은 새해 첫날 특별한 해맞이 이벤트를 즐겼으며, 따끈한 닭죽 및 2005개의 계란을 담은 복주머니를 선물로 받아 즐거워했다.

이 행사는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관련 기관·단체·업체, 심지어 일반 소비자들과 함께 이겨낸 후 열린 행사라 더욱 감회가 새로웠으며, 이 행사를 계기로 2005년 닭의 해에 우리 계육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2. 언론의 SI관련 과대보도로 악몽이 재현되다

Hot

동남아시아 등 일부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관련 우리나라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TV나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서는 이들 나라에서의 매몰·살처분 등 혐오스러운 장면을 그대로 연일 과대보도하여 소비자들에게 닭고기·계란 등 관련 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시켜 학교급식 공급 감소·대형마트 판매급감 현상 등 또다시 우리 업계의 목을 죄어왔다.

올해 초 베트남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태국, 중국 등지에서 차례로 발병됐으며, 급기야 북한에서도 AI가 발병돼 국내 방



역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9월말 세계보건기구(WHO)의 데이비드 나바로 AI 담당 조정관은 'AI에 감염돼 사망자가 1억5,000만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AI가 발병하면 군대를 동원, 검역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터 또다시 AI의 악몽이 재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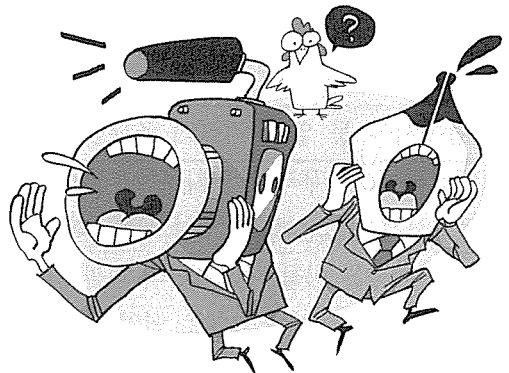
이것도 모자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명옥 의원은 질병관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국내 AI가 발생할 경우 최대 1,500만 명이 감염되고, 이 가운데 44만여명이 숨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불안감을 조장했으며, 여기에 이종욱 WHO 사무총장은 '이번 AI는 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몇 백만명이 AI에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겨울에 유행하는 독감과 AI가 결합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주장하는 발언을 해 소비자들을 불안케 하는데 썰기를 박았다.

이때 국외 상황은 러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 루마니아에서까지 AI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현혹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0월 14일자로 AI 발생예보를 발령했는데, 이 예보에 닭고기 가공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시내 음식점엔 손님들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 기간동안 본회 회원사의 경우 1일 판매량이 30%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엮친 데 덮친 격으로 AI 발생국가가 동남아시아를 비롯, 터키, 그리스 등 유럽으로까지 확대되자 정부에서는 국내 AI 재발방지를 위해 AI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대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국내에서 AI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의 무차별적인 과대 보도로 국내 상황이 어려워지자 본회 한형석 회장을 비롯, 관련 단체장들은 KBS, MBC, SBS, YTN 등 방송국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사를 찾아가 언론의 과대보도 자제과 아울러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의 안전성에 대해 홍보했다.

그리고 '조류독감' 용어를 공식 명칭인 'AI' 로 표현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각 언론사에서는 11월 1일부터 '조류독감'에서 'AI' 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본회를 포함한 관련 6개 단체는 AI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 'AI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2월 1일에는 서울 명동 밀리오레 앞 광장에서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국내산 가금생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AI 배상책임보험 가입홍보 닭고기·오리고기·계란 소비 캠페인'을 벌였다.

이 보험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허가된 도축장에서 생산돼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유통된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된 제3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으로 최고 20억원까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시식회 및 캠페인을 통해 AI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한편, 언론사별 보도동향을 분석해 대응하는 대언론 대응방안과 학교, 공공기관 등을 위주로 한 닭고기 급식물량 확대 활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소비감소세도 둔화됐으며, 닭고기 가격은 한 달 전과 비교해 11월 5일 kg당 700원에서 12월 5일 현재 1,200원까지 상승했다.

3. 육계 자조금 시대 개막... 대의원 선거 실시

Hot

Hot Issue



양돈, 한우에 이어 육계분야도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8월 공동준비위원회 발족에 이어 의무자조금의 시행여부를 결정

짓게 될 중요한 기구인 대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의원 선거가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

지 전국 68개소 선거구에서 5일간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당초 76개 선거구에서 총 1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대의원 미등록 선거구 2개소(배정 대의원수 4명), 유효투표수 미달 선거구 6개소(배정 대의원수 11명)가 제외돼 총 68개소에서 135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135명은 총 선출할 대의원 총수 150명의 9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특히 육계자조금 대의원 선거는 유효득표미달선거구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가 참여율이 58.7%(사육수수는 63.7%)에 이르는 등 지금까지 치러진 자조금 대의원 선거 중 최고의

농가 참여율을 기록했다.

또한 유효선거구 중 농가숫자를 맞추지 못해 사육수수로 유효요건을 갖춘 곳은 경북, 경남 각각 1곳씩 2개소에 불과,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렇게 구성된 대의원회에서는 자조금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자조금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며 그리고 또 집

행기구인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제 육계의무자조금 사업 시행은 곧이어 개최될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연말까지 모든 준비 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의무자조금 사업이 시행되게 된다.

4. 올해 육계 사육수수 사상 최고치 기록

Hot



올해 닭 사육수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가축통계에 따르면 총 닭 사육수수는 1억4천9백34만5천수로 전분기 대비 36%가 증가했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21%가 증가했다.

특히, 육계의 경우 사상 최고인 8천8백13만7천수로 전분기 대비 67%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6천8백52만6천수에 비해서도 2천만수가 증가한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육수수를 보였던 기간은 2002년 6월로 이때의 사육수수는 7천2백19만3천수였다.

이처럼 닭 사육수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3년 말 국내를 비롯 미국, 태국 등 닭고기 주요 수입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고기 수입량이 최저치를 기록, 반사적으로 국내 닭고기 가격은 kg당 2,000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격이 좋아 농가들이 입식을 많이 했기 때문이며, 이때 복 경기를 겨냥한 삼계물량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 6월부터 미국산 닭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돼 공급량이 크게 증가, 하반기는 물론 내년도 육계산업 전망을 어둡게 했다. 실제로 7월 13일 kg당 1,700원까지 올라갔던 시세는 25일 중복 이후 가격이 100원씩 떨어져 결국 11월 말에는 700원대 이하의 가격을 기록했다. 이 가격은 생산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가격이다. 또 한때 720원까지 올라갔던 육용병아리값도 동반 하락, 10월 20일 마리당 100원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림부에서는 박현출 축산국장 주재하에 하반기 양계산물 수급안정 대

책 회의를 열어 75주령 이상의 육용종계 노계 군 전량 도태, 지속적인 원종계 쿼터제 실시, 닭고기 수입확대 방지를 통한 산지육계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유지시키겠다는 등의 강구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육계시세에 따른 육용 실용계병아리값의 가격 연동제, 종계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조기정착, 양계산물의무자조금의 조기추진, 닭고기 수출입 대책, 백세미의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5. 전국육계사육농가연합회 구성

Hot

육계인들이 스스로 국내 육계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권익을 찾기 위해 '전국육계사육농가연합회'를 구성했다.

전국육계사육농가연합회 추진위원회와 하림, 체리부로 소속 농가대표들은 지난 9월 23일 대전 유성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심순택씨를 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

연합회에서는 최근 언론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과대보도로 닭고기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과대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수입업체를 찾아가 수입닭고기로 인한 국내 육계산업과 농가피해를 주장하며, 해당 업체로부터 닭고기 수입사업 중단이라는 큰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계속 닭고기 수입 저지와 함께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 이견이 있을시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 미국산·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Hot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됐다.

지난해 2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던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지난 5월 재개된 이후 수입 첫달인 6월 1,349톤의 닭고기가 들어왔다.

이후 7월에는 수입량이 8,725톤으로 폭발적으로 증가, 7월 전체 수입량인 9,307톤의 93.7%를 차지했으며, 8월에도 8,091톤이 수입돼 비슷한 점유율을 기록했다.

Hot Issue

반면 7월 중 덴마크산 닭고기는 582톤으로 매월 2천톤 이상 수입되던 것이 1/5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유럽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9월들어 4,783톤으로 약 60% 정도 수입물량이 감소했으며, 브라질산 닭고기 289톤이 같은 달 수입됐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다.

급기야 10월달에는 미국산 3,233톤, 브라질산 628톤, 덴마크산 514톤, 호주산 1톤 등 총 4,376톤이 수입돼 9월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인 4,783톤에도 못미치는 양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올해 육계사

육수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닭고기 소비가 둔화돼 육계가격은 700원대 이하선까지 떨어져 오히려 수입산 닭고기 가격이 국내산 보다 더 비싸 수입업체에서는 소비처를 찾지 못해 물량을 줄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구나 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실을 언론에서 연일 과대보도해 닭고기 소비 둔화가 더욱 심각해져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것으로 보고있다.

향후 국내 닭고기 업계의 시장변화에 따라 닭고기 수입의 많고 적음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주)화인코리아, 부도 어려움 딛고 약진

Hot

Hot Issue

(주) 화인코리아

2003년 말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부도의 아픔을 겪었던 (주)화인코리아가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후 기사회생 해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다.

(주)화인코리아는 지난 4월 1일 화의 인가 결정을 받았다. 2003년 부도 후 1년 4개월 만이다.

화인코리아는 은행권 채무에 대해서는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그리고 농가 채무에 대해서는 오는 2007년까지 분할상환한다는 채무변제 조건을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농협에 대한 채무 가운데 연체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후 변제기로 했다.



이후 화인코리아는 빠르게 회생되고 있다. 화의인가가 난 후부터 지금까지 1백55억원의 채무도 갚았고, 위탁사육농가에 이미 38억원의 자금도 지원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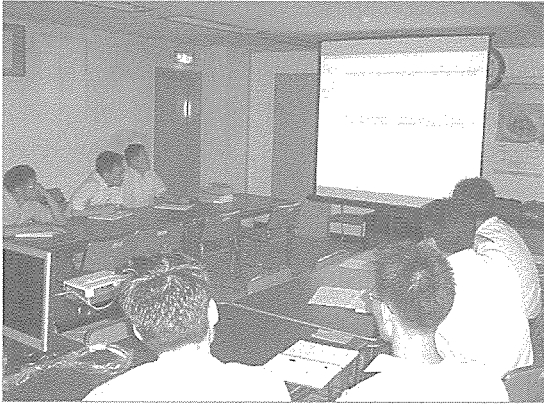
그리고 수출에 역량을 집중시켜 올해 예상 매

출은 700억원으로,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던 2002년 1천360억원의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8. 종계 D/B 구축을 위한 종계장 실태조사 착수

Hot



종계 데이터베이스(D/B) 사업을 위한 종계장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초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를 '가금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안정생산기반 구축의 해'로 삼고 수급예측 시스템 정착을 통한 사전 수급조절체계 구축, 가금산물 소비홍보사업 강화로 국내 소비기반 확대, 조사연구 및 생산자교육을 통한 가금산물 생산효율성 증대, 가금산물 수출촉진 지원으로 수급안정기반 확보를 해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수급 위는 종계 데이터베이스(D/B) 정착을 통한 자율생산조절을 유도하고, 수출프로모션의 본격적 추진으로 수출기반 구축지원, 가금산물 수출물류비 지속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유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 방향도 설정했다.

이와 관련 종계 D/B 구축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양계협회가 선정됐으며, 양계협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종계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종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8월 29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종계 D/B 프로그램의 1차 시연회를 갖고 프로그램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고, 보안점에 대해 논의했다.

종계 D/B 프로그램은 종계의 판매이동 현황, 원종계의 사육실태, 종계장별, 계사별 관리, 종계의 판매 및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앞으로 보안점을 거쳐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종계 사육수수를 한 눈에 파악, 양계산물 수급조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C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유익한 일들로 채워가라. 그것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 R.W. 에머슨 -